

발간사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김 찬 수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에 농촌마을 지역의 희망과 행복한 삶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주민들이 하나둘씩 참여하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촌에서의 삶을 나누고 의지하며 서로에게 이웃이 되고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담아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處音) : 처인구의 소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용인시 처인구 농촌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농촌마을의 행복과 즐거움, 희망 가득한 우리 처인구 농촌마을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은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처인구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 꿈과 희망 등이 있습니다. 농촌의 구석구석 삶의 이야기, 주민이 쓰는 마을 이야기, 마을 활동과 관련한 마을 더하기, 가보니 해보니와 같이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이야기 등의 다양한 농촌마을의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 가득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슴 따뜻한 마을 삶의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처음>은 용인시 처인구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농촌 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길 바랍니다.

<처음>을 통해 농촌마을에서 피어나는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오래오래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도농복합도시 용인,
소중한 농촌을 담은
처인구



처인구 명칭의 유래인 처인(處仁)은 고려 현종(高麗 顯宗) 시기에 불리던 지명이었다. 그리고 이 지명을 복원하여 역사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2005년 처인구가 설치되었다.

1990년대 중반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되고 수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어 20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2년 용인은 인구 백만, 3구 4읍 3면 31동을 갖춘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용인특례시의 역사 속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지구와 기흥구에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화된 용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우나 이백만 도시 중에서 처인구 7개 읍면은 농촌이다. 30년 전 도농복합 형태가 그대로 남아서 유지되었던 것이다.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나 인구 비중은 24.97%로 다른 구들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편으로 용인의 자연환경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의 4읍,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의 3면이 유지되고 있어 행정체계 또한 전통적인 용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농촌의 전통적인 마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처인구는 도시화된 지역과는 또 다른 모습의 용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contents

STORY 01
문화·관광 자원
구석구석

- 10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 12 호국사찰 묵리 용덕사
- 14 포은 정몽주 선생의 뜻을 기리는 포은문화제
- 16 “위로하듯 지는 붉은 해를 만나다” 어비낙조
- 18 용인의 물줄기 경안천을 가다
- 20 용인 3.1만세운동 첫 외침의 발자취
- 22 처인성, 800년 역사의 현장
- 24 용인 석포숲 공원의 아름다움
- 26 용인 서리, 고려백자 초기의 원형을 찾아서
- 28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를 찾아
- 30 약천 남구만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
- 33 할미산성의 옛 흔적
- 36 조비산의 산마루에서
- 39 민간 신앙의 토대가 된 창리 선돌
- 40 도심 속 재래시장 용인중앙시장
- 44 은이성지와 양지성당

STORY 02
마을 소식
주민이 쓰는
마을 이야기

- 50 ‘마을 고모님’이라는 호칭이 좋아요. 다인네 외갓집
- 51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 52 잠들어있던 정미소, 카페 ‘석실방앗간’ 으로 재탄생하다!
- 54 꽃을 닮은 삼계4리 떡 방앗간
- 55 웃음꽃 피는 마을살이
- 56 추억의 수여선 기찻길
- 57 사랑과 정이 물결처럼 일렁이는사암리
- 58 볼수록 어메이징한 매력만점 모현
- 59 함께하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STORY 03
농촌인의 삶
희로애락
농촌살이

- 62 “청경채는 이제 친구같고 자식같지요” 월촌제일작목반 김종환 반장
- 64 “화훼 산업으로 새로운 직업을 또 만들 겁니다” 남사화훼집장 이기욱 대표
- 66 자연과 농부가 함께 키워낸 최상급 목이버섯, 새암농장 오호영 대표
- 68 청정자연환경과 6차 산업을 통해 만들어낸 학일마을, 김시연 운영위원장
- 70 행복을 나누고 싶은 여성농업인,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 허인순 회장
- 72 마을과 사물놀이 전문 예술가와의 흥겨운 만남!
- 74 모두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활동, 백암면 근곡2리 박성현 이장
- 77 남산마을을 이끌어 가는 힘, 남사읍 아곡1리 박지영 이장

STORY 04
공동체 활동
마을에 더하다

STORY 05
교육 참여 후기
가보니
해보니

- 82 백암면 안창리 수정산 기슭에 스며들다, 씨앗도서관 양춘모 대표
- 84 마을을 넘어 달콤함을 전하는 사람들, 달콤그림책
- 86 나르샤 수채화 손자영 대표
- 88 마을육아 공동체, 못빠다 이숙희 대표
- 91 ‘원삼에서 즐거운 나’ 활동을 마치며

- 96 처인구 ‘용인형 마을자치학교’를 열다
- 98 문화기획자, 로컬을 열다
- 99 농촌마을 리더대학을 가다
- 100 마을 코디네이터가 되다
- 101 함박웃음 꽃이 피다
- 102 행복과 건강이 꽃피는 물빛누리 주내마을
- 103 배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 104 다시 활력을 찾게 된 ‘문화섬탈출’
- 105 실버들의 무용
- 106 농촌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발표회
- 108 함께 해요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 110 용인 농촌의 미래를 꿈꾸다! 스마트 드론 교육
- 111 수상한! 네트워크 DAY
- 112 용천2리 어르신들과 만나는 인지보드 수업
- 113 일주일에 한 번 마을회관으로 소풍 가요~
- 114 마을 어르신들과 젊어지는 느낌
- 114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요가 수업
- 115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었던 건강체조
- 116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 원삼면 이음센터
- 118 제5회 원삼면 황금들녘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 120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즐거움, 상덕마을
- 122 “즐거운 마을 이웃과 함께!” 성과공유회

- 02 발간사
- 04 처인구 소개
- 124 활동가 소감
- 126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스토리
- 127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

처인의 소중한 자산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소박하고 소소한 기쁨으로
만나길 바라며...



STORY 01

문화·관광 자원
구석구석



원삼면 미평리의 상징이자 지명유래가 된 미륵불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彌坪里 藥師如來立像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재라는 것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2024년 현재 용인시는 국가 지정 유산 67건, 경기도 지정 유산 65건, 용인시 향토 유산 60건, 총 19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 있는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글 전은희 사진 김영욱

📍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66-16
17번 국도에서 미평1리 미평로로 진입하여 미평1리 회관 옆에 위치.

고려시대 민간 주도하에 만들어진 토속적인 불상

2023년 현재 인구 7,900여 명이 사는 원삼면은 용인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이천시, 안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높은 산 사이로 들판이 펼쳐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소박하면서 아름다운 고장이다. 원삼면 미평리에 있는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앞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가 되면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 풍년을 기원하는 미륵고사제가 열린다.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불상을 '미륵불'이라 불렀고 미평리 일대 들판을 '미륵뜰'이라 하였던 것도 이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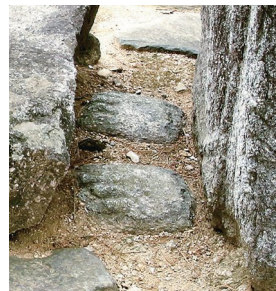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불상의 조각기법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형적인 비례가 맞지 않고 몸집에 비해 얼굴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으며 팔과 다리를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것은 고려 초 경기, 충청 지방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모양으로 지방 장인의 솜씨가 담긴 토속적인 분위기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불상으로는 경기도 내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온화한 표정을 한 불상의 얼굴



약병을 들고있는 작은 손 모양



맨 바닥위에 나란히 놓여진 두 발



측면에서 보면 날씬한 모습

손에 둥근 약단지(藥師佛)²를 들고 있는 약사불(藥師佛)²은 질병을 고쳐준다는 부처다. 마을 사람들이 병의 치유를 기원하면 약을 준다고 해 '의왕불'(醫王佛)이라고도 한다. 정병을 부처가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지방으로 널리 퍼지면서 관이 아닌 민간의 주도하에 불상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특색있는 불상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상 주변에는 높이 80~100cm에 이르는 돌기둥의 흔적도 남아 있는데 원래 불상을 모시던 불당이 지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앞이 막히면 동리에 흉사가 생긴다고 하여 일절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

무심한 듯 친근한 모습의 미륵불

높이 4.05m, 두께 0.5m, 가슴너비 1.3m 규모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용인지역에서 가장 큰 크기이다. 비만해 보이는 거대한 몸집에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을 머리에 이고 있다. 보통 머리에 이고 있는 갖의 모양으로는 원형, 방형, 팔각형, 병거지나 패랭이 모양 등 다양하지만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그저 무심하게 평평한 돌 하나 얹어 놓아 더욱 눈길이 간다.

가늘고 긴 반달형 눈, 끝이 뭉뚝한 주먹코, 일자로 꼭 다문 가는 입술, 큼직한 귀, 이마에는 눈썹 사이에 백호가 새겨져 있다. 어찌 보면 위엄이 있고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푸근하고 평안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풍만하고 넉넉한 얼굴과는 달리 신체의 옆면을 보면 평면으로 되어있다. 양손은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왼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는데 병 안엔 영험한 명약이 담겨 있을 듯하다. 옷 주름은 발밑까지 크

게 곡선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 불상 앞쪽으로는 예불드릴 때 제물을 올리기 위한 판석이 놓여 있다. 불상 하단과 판석 사이에 발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다섯 개의 발가락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크기가 매우 양증맞다. 손이나 팔, 발의 표현이 우람한 체구에 비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설피 감이 있다. 또 연화대좌³ 없이 바닥에 맨발로 딛고 선 모습이 특이하다.

용인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

불완전한 속세의 고통과 번민 속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를 형상화한 듯, 온화한 불상의 얼굴은 삶에 지친 모든 중생을 보듬어 줄 것만 같다. 약사여래가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는데 영험함이 있다고 하니 치유를 기원하는 참배자들의 발길이 일 년 내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용인의 자부심이 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 또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로 지속해서 보존하고 관리되기를 바란다.



1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석가모니에게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석가모니가 죽고 56억7천만년이 지난 뒤 이 세상에 내려와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2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지(無智)의 병까지도 고쳐주는 부처로서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불린다. 이 부처는 둥근 약단지를 들고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3 보살님을 모시는 자리를 연꽃의 모양으로 조각을 하여 연화좌, 연화대좌라고 한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화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덕이 있는 꽃으로 인식됐다. 따라서 불교에서 연화는 부처와 보살이 앉는 자리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불상의 대좌는 대부분 연화좌이다.



용의 공덕으로 만들어진 호국사찰 묵리 용덕사 墨里 龍德寺

용인특례시는 용의 상징처럼 용과 관련된 곳이 많다. 그중 한 곳인 용덕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 미륵불이 모셔져있고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찰이다.

글 강은주 사진 김영옥

용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절 뒤편 산언덕으로 오르는 곳에 있는 극락보전 뒤 바위에 암굴이 있어 일명 ‘굴암절’이라고도 한다. 절이 위치한 굴암산은 용인의 남쪽으로 안성시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용인시청에서 출발하여 용덕저수지를 지나면 왼쪽 산 아래 용덕사라는 뜻말이 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온 사찰

용덕사의 건립연원에 대해서는 『디지털용인문화대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용덕암은 1792년(정조 16)에 승려 석담이 정리한 『용인군성륜산굴암용덕암창건기(龍仁郡聖輪山窟巖龍德菴創建記)』에 따르면, 신라 문성왕(文聖王) 때 염거화상(廉居和尚)이 초창하였고,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중수하면서 3층석탑과 철인(鐵人) 3위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1914년 5월에 기록된 『불량전답헌납기(佛糧田畓獻納記)』에 따르면, 1792년의 기록에 덧붙여 조선 중기에 석담선사(石潭禪師)가 중건하였고, 1825년(순조 25)과 1884년(고종 21)에 각각 승려 정사(淨

숨)와 성월(聖月)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용덕사의 경우 염거화상, 도선국사 이후의 변천 과정은 알 수 없고, 조선 중기에 석담선사가 사찰을 중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미하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8년 성효스님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창되어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예전에 찾아온 후 두 번째 용덕사 방문이다. 용덕사 입구에서 이정표를 보고 한참을 올라갔다. 좁은 담 사이로 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주택지를 지나니 도로 중간에 조그마한 화단이 보기 시작한다. 그러다 길 중간 일주문이 있다. ‘성륜산 용덕사’라고 적힌 일주문의 두 기둥에는 사천왕상이 잘 그려져 있다. 일주문을 통과해서 야트막한 계단을 지나 그렇게 또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는 중간에 숲이 우거져 마치 다른 곳처럼 느껴진다. 주차장 이정표엔 양지바른 햇살이 내리쬐다.

한숨 몰아쉬고 다시 올라가니 드디어 탁 트인 용덕사에 도착하였다. 정성스레 쌓은 높은 돌담 위에 범종각, 미륵전, 대웅보전이 나란히 보인다. 검은색과 화려한 색이 들어간 범종각, 바로 옆 미륵전에는 수더분한 미륵여래입상과 함께 다양한 표정의 나한상들이 있다. 미륵전의 문은 알록달록한 꽃모양의 문살이다. 대웅보전엔 석가모니를 가운데 두고 보살 두 분이 계신다. 미륵전과 대웅보전 사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층석탑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다. 처음 왔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내려갔지만 오늘은 전설이 깃든 굴암(용굴)을 찾아갔다.

오층석탑 바로 위로 가는 길이 가파르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놓았을 투박한 돌계단으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다 보니 세 갈래로 갈라진다. 중앙에 마치 기다린 듯 극락보전을 중앙으로 왼쪽 계단 끝에 전설의 굴암과 ‘희망의 종’이 있다. 용이 승천했다는 구멍도 보았고 굴 안



에 관음보살도 보였다. 황금색의 3번 타종하면 소원을 들을 줄 것 같은 희망의 종도 쳐보았다. 다시 내려와 오른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니 삼성각을 뒤로 바라본 풍경은 힘들게 올라온 보람처럼 기분 좋은 전망으로 쉬게 해줬다. 한참 사심 없이 쉬고 다시 내려와 기와로 만든 담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또 한 번 눈을 감고 용덕사를 담아보았다.

용인의 호국사찰

용덕사는 대한제국 시기(1897년~1910년) 국권 회복을 위한 용인지역의 의병 항쟁에서도 등장한다. 용인 양지면 출신 임옥여(任玉汝) [임경재(任景宰), 1872~1907]는 용인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그는 1907년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의 정국을 개탄하며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 기병대와 이천, 광주, 용인, 죽산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는데, 이 용인 굴암산에서 일본군 토벌대와 교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오후 6시를 알리는 범종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조심스레 오랜 전설과 항일 의병 활동 격전지였던 용덕사를 내려온다.

☞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71-41 용덕저수지를 지나 용덕사천 묵리계곡을 건너 굴암산 중턱에 자리잡음

포은 정몽주 선생의 뜻을 기리는 포은문화제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 잡다!

매년 가을 처인구의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들 때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의 축제가 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년~1392년) 선생의 묘가 있는 모현읍 능원리에서 진행되는 축제. 바로 정몽주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 지어진 '포은문화제'이다. 이 축제는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와 문화를 융합해서 시민들과 연결하는 의미도 있다.

글 고영신 사진 김영욱

📍 처인구 모현읍 능곡로 45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塵土)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丹心歌)」

용인을 대표하는 위인 포은 정몽주 선생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단심가는 고려 말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겠다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시다. 선생은 동방이학의 시조로 성리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다방면에 특출하였다. 개성에 5부 학당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들을 구제하였다. 군사와 외교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였고 시문, 서화에도 뛰어나서 「단심가」 외에도 많은 작품이 전해진다. 포은 선생은 경상북도 영천에서 출생하였다. 개성 풍덕군에 모셨던 포은 선생의 묘를 고향인 경상도로 천묘(遷墓)¹하던 중에 행렬이 용인시 수지읍 인근에서 잠시 쉬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명정(銘旌)²이 날아가 지금 묘소 자리에 떨어졌고 바로 그 자리가 명당자리라 하여 묘를 쓰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한시 백일장



전통농악단



정몽주 선생 석상

정몽주 선생의 묘는 1972년 5월 4일 경기도 기념물 1호³로 지정되었고 2024년 현재 경기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22년 11월에는 정몽주 선생 묘소 입구에 커다란 석상이 세워졌다. 석상의 규모가 웅장하여 지나가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관람객들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까지 가는 언덕길을 산책 삼아 걸어본다. 묘소 앞에서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멀리 보이는 산세와 풍경들이 속세의 번민을 씻어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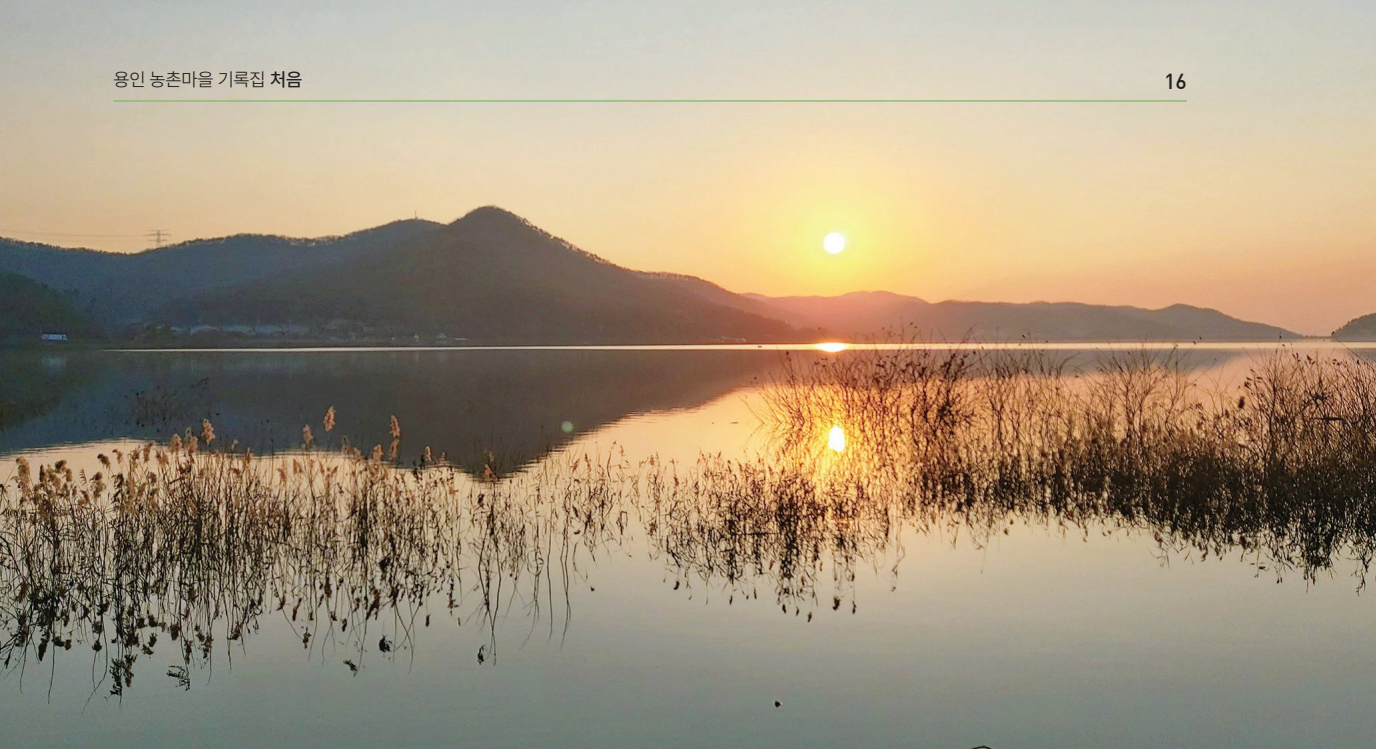
포은문화제에 가면 한복을 입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치 고려시대에 와있는 것처럼 푸른 한복을 갖춰 입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한시 백일장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외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골든벨, 국악 경연 등 다양한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2023년 제19회 포은문화제에는 전국 한시 백일장과 스토리텔링 경연 대회가 열렸다. 그 외에 옷놀이, 한복체험, 투호 놀이, 탁본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과 풍선 터트리기, 업사이클링 만들기 등 현대적 체험거리들이 펼쳐졌다. 포은문화제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볼거

리는 과거의 상여 행렬을 재현한 것으로 능원 초등학교부터 묘역까지 행진하는 장면이었는데, 2023년 포은문화제에서는 추모 제례와 천장 행렬이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

포은문화제로 전통과 문화를 연결하다

또한 포은문화제에서는 용인문화원이 새롭게 기획한 '포은스쿨-역사 놀이터'라는 새로운 시도가 펼쳐졌다.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학당의 형식으로 역사퀴즈 풀기, 비파악기 체험, 과거 시험 체험, 미션 수행하고 선물받기, 명장과 도자기 체험, 달고나 체험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어린이들에게 역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용인실버예술인연합회 공연과 용인문화원합창단 등의 공연이 선보여졌고, 국악 관현악단과 퓨전국악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장 옆 모현당에서는 포은의 생애와 사상, 단심가를 창으로 배우고, 포은 선생을 향한 의례를 배우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이렇듯 포은문화제는 과거 역사적 위인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는 축제이면서, 전통과 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자리 잡았다.

1 묘를 옮김 2 죽은 사람의 관직, 성씨 등이 적힌 붉은 천 3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이 시행되어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아듀 2023년 “위로하듯 지는 붉은 해를 만나다” 어비낙조 魚肥落照

용인시청을 거쳐 45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시 경계 부분에 바다처럼 넓디넓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동(어비리)저수지다. 이곳의 낙조는 용인 팔경 중 마지막 8경에 속한다. 비경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 찾아가 보았다.

글 손수정 사진 김영욱

● 처인구 이동을 어비리(이동저수지)

근처 가볼 만한 곳

- 송담고택(처인구 이동읍 어진로 780)
- 동도사(처인구 이동읍 어진로 842)
- 이동저수지 둘레길 (송천레스피아~송전뉴시터 2km 구간)
- 남사화훼단지

이름의 유래 - 이동(二東) 어비리

이동(二東)은 어비천(川)을 사이에 둔 상동촌(上東村)과 하동촌(下東村) 두 마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원어비울[元魚肥村]은 하동촌면 지역이었는데, 조선 태조 6년(1397년) 순흥 안씨 6세조인 안이영이 고려 말 정란을 피해 이곳으로 왔고, 강릉 김씨, 청송 심씨, 청주 정씨에 이어 여러 성씨가 정착하여 7개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형이 고기의 날개 지느러미와 같이 생겨 어비촌이라고 ‘용인시 연혁 대장’에서 전하고 있으며, 도랑을 파다가 황금빛 물고기가 튀어 올랐다는 데서 어비(魚飛)촌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어윤중의 죽음을 예견한 어비리, 고기가 살찌는 마을이 되다

어비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구한말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고종이 아관파천하던 시기, 친일 개혁파 내각이 붕괴하고 당시 탁지부 대신이던 어윤중(魚允中)도 역적으로 몰려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고향인 보은으로 낙향하던 중이었다. 어디쯤인지 궁금해하는 어윤중에게 한 행인은 “용인의 어비울이올시다.”라고 하며, 고기 어(魚), 슬플 비(悲), 답답할 울(鬱)를 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 막 떠나려 할 때, 그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의해 참혹하게 피살되었다. 그 후 순종은 어윤중을 규장각 대제학으로 추증하는 한편, 제관을 보내어 사당에 제사를 지내주며 이곳을 어비리(魚肥里) 즉 ‘물고기가 살찌는 마을’로 고쳐 쓰도록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동저수지가 들어서면서 그 이름대로 붕어 낚시로도 유명한 ‘고기가 살찌는 곳’이 되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노래

1971년 12월 부족한 농업용수를 위한 제방이 완공되면서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다. 수몰된 지역 주민 2,351명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1983년 실향민들은 용어회를 설립하고, 1985년 ‘원어비동 유적지 영세불망비’를 세웠다.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이들의 마음은 함께 모여 고향을 기리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는 1995년 심명옥 씨가 가사를 쓰고 편곡한 「애향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1절> 동구 밖 느티나무 호수에 잠기고
함께 놀던 옛 친구는 어디로 갔나
토운봉에 호랑바위 너만은 알리
(후렴) 살기 좋은 어비울을 잊지는 말자

비경 속의 숨겨진 비경

이동 저수지는 관개 면적 9,000ha, 유효 저수량 20,906,000㎥ 규모의 인공 저수지이며, 경기 내륙에서 저수량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곳

의 옛 모습은 1477년 어비울에 낙향, 칩거하던 김언신이 ‘魚洞八景(어동팔경)’이라 하여 8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기록해 놓았다. 성륜봉의 아침햇살, 수선대에 비친 밝은 달, 탁영정에 모인 친구들, 석우천에 드리운 낚시, 용강에 지는 해, 방목리 마을의 점심 짓는 연기, 금단사의 새벽 종소리, 갈마산의 비취색이 그것이다. 8경 속 8경인 썸이다. 1963년 수몰될 위기에 놓인 금단사 절터에 있던 경기도 지정 유산인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과 용인시 향토유적 제65호인 석불좌상을 지금의 동도사(東度寺)로 옮겼다.

내일 또 솟을 해를 보며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낙조를 기다린다. 점점 붉어지는 잔잔한 물결 위를 응시하다 보면 차츰차츰 색이 진해진다. 사라지기 바로 직전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가. 해는 담담히 넘어가는 중이다.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는 어비낙조 또한 아름다웠다. 그제야 깨닫는다. 주인공은 빛나는 해가 아닌 것을. 지는 해 주위로 퍼지는 붉은 빛인 것을. 수억 수천만 방울의 공기가 바로 주인공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뿐 아니라, 집터를 잃지 않기 위해,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붉은빛으로 계속 남아 있음을 알겠다. 나는 그만 멍멍해져 아주 찰나의 시간 빛을 다해 이미 캄캄해진 뒤에도 오래도록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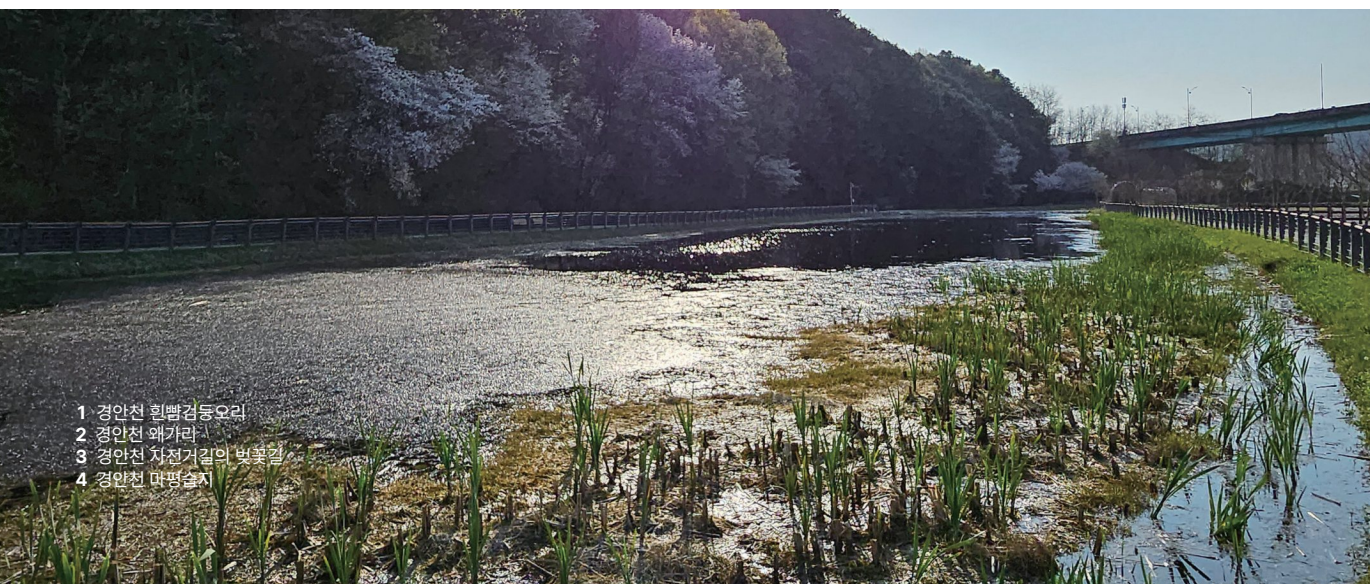
용인의 물줄기 경안천을 가다

경안천은 용인시 처인구 용해곡바래기 산 남쪽의 420m 남동쪽, 해발 400m에서 시작하여, 용인시와 광주시를 관통해 한강 본류인 팔당댐으로 흘러 들어간다. 유역면적 561.02km², 유로 연장 49.3km, 하폭 1,930km, 하천 연장 22.5km인 국가하천이자 용인의 대표 물길이다. 봄기운을 태운 에버라인에 몸을 싣고, 용인중앙시장(용인예술과학대)역에 내려 천변을 걸어 보기로 했다.

글 손수정 사진 손수정 장은영

봄이 오나 봄

청명을 앞둔 4월 둘째 날. 밖은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천변은 연둣빛 새싹들이 가득했다. 중간 중간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정비하는 공사 장면도 눈에 띄었다. 걷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쭉 캐는 아낙네까지. 한적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풍경들이었다. 얼마 걷다 보니, 물 위에서 날개를 파닥거리는 까만 새와 목이 긴 새가 보인다. 무슨 새인지도 모르고 ‘좋은 풍경이네.’ 하고 사진을 찍는다. 걷는 동안 군데군데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경안천의 어디쯤 인지를 알 수 있었다. 또 지역 청소년 환경 동아리에서 ‘창포’를 2022년 4월 30일에 심었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있었다. 단오절에 뿌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그 창포다. 찾아보니 포곡읍에서는 매년 창포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북으로 난 하류로 향할수록 하천의 너비가 점점 넓어졌다. 처음에는 둔전역 정도까지만 걸어 볼 생각이었지만 결국 에버랜드역까지 걷게 되었다. 봄바람이 사랑살랑 불었던 탓이다.



1 경안천 흰발검둥오리
2 경안천 왜가리
3 경안천 자전거길의 벚꽃길
4 경안천 마평습지

경안천의 이름

경기도 광주시 경안리에서 따온 경안천(慶安川)의 이름에는 ‘기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일제강점기에는 ‘김량천(金良川)’이라고도 불렸는데,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우천(牛川), 즉 ‘소내’로 표기되어 있다. 팔당댐과 만나는 곳에는 경안천의 옛 이름을 딴 ‘소내섬’이 자리한다.

경안천의 새 이야기

며칠 후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안천의 새 이야기’라는 전시를 보러 다녀왔다. ‘지구별 작은 도서관’의 활동가이며 화가인 장은영 씨는 종종 경안천으로 나가 새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그는 2020년경부터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알게 되면 보이고, 점점 사랑하게 된다고 했다. 뽕뽕도요, 해오라기, 물총새 등 사랑스러운 새 이름이 많았다. 사진과 그림으로 담은 그 그림들을 설명해 주어서 새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평상시 말수가 없다고 했는데, 경안천의 새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눈이 반짝여서 애정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바로 벚꽃이 피어있는 장소들을 답사하기 위해 경안천 1구역을 방문했는데, 마평습지에 청둥오리 한 쌍이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반가웠다. 장은영 씨는 경안천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생태 감수성이 키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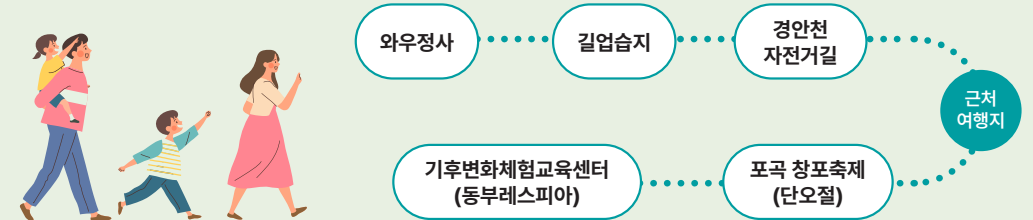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알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벚꽃길과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경안천에서 벚꽃이 제일 많이 피는 곳이라면 ‘와우정사’ 가는 길의 벚꽃길이 아닌가 한다. 이곳은 조금 서늘한 곳인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피어있어, 마지막 벚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널리 알려진 벚꽃 명소라기보다는 산책길에 잠시 만날 수 있는 편한 친구 같은 벚꽃길이다. 북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나온다. 아이들이 교육과 영상까지 체험한 후 습지를 둘러보기 좋게 되어 있었다. 생태적으로 수질 정화를 위해 EM¹ 방류 탱크가 있거나 습지에 환경부의 신기술인 ‘비오톱’²이라는 것을 2015년에 설치하는 등,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

경안천의 매력

경안천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곳이 많은 미지의 세계 같다고 생각했다. 발원지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넓어지는 강폭, 한산한 느낌, 그러면서도 계속 변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다. 보이는 것뿐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것마저 매력적인 경안천이 되길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에 자전거를 타고 경안천을 한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1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서 유용한 미생물들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이다.
2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한다.



어린이뮤지컬단 리틀용인의 만세운동재현 공연

용인 3.1만세운동 첫 외침의 발자취

처인구는 오래 전부터 처인성 전투, 항일 의병 활동, 만세운동 등 애국, 구국의 열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3월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이 용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발생지인 좌찬고개 만세 운동지를 찾아가 보았다.

글/사진 이영근

집을 나선 지 40분쯤 되어 드디어 용인 만세운동의 첫 외침을 시작한 곳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지산CC 입구 왼쪽 지산타운이라는 간이 휴게소 옆 주유소 꼬트머리에 ‘원삼면 3.1운동 준비지’라는 검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다.

이곳은 용인 3.1만세운동의 시작점인 최상근 주막터(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646)이며, 여기 평창리 도창마을 입구에서 1919년 3월 20일 밤(3.21 거사일 전)¹ 만세운동을 최종 계획하고 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한 곳이다. 마을 입구이자 주막터가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도 이 장소에는 간이 휴게소가 자리를 잡고 음식점, 주유소 등이 모여 있다. 이곳이 용인 3.1만세운동의 중요한 발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삼면 3.1운동 준비지’라는 타이틀만을 표시한 채 단출한 역사 설명 표지판 하나만 있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옛 주막을 재현한 건물이나 만세운동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모습들을 재현하는 동상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¹ 국립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원삼면의 만세운동은 3월 31일로 확인된다.

최상근 주막터에서 약 2백 미터 남짓 걸어 좌찬고개에 들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및 기념탑이 있는 곳이다. 이 좌찬고개에서 용인 3.1만세운동의 햇불이 타올라 수지, 기흥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졌다. 잘 형성된 공원과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찾아오는 방문객은 거의 없지만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3.1만세운동 기념공원을 나와 좌찬고개에서 ‘원삼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였던 원삼면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좌향리를 거쳐 만세운동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왼쪽에는 SK하이닉스 토지 조성사업 공사 중이라 여러 곳에서 소음과 먼지가 차창을 때린다. 아마도 이 지역에 새로운 돈 맥을 캐는 중인 모양이다.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에 사금광이 있었다고 하니 역사적 흐름은 묘한 연결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일제의 수탈이 워낙 심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만세운동에 불을 붙인 게 아닐까 싶다. 1919년 5월 9일 재판기록에 있는 판결내용에서 참여자들의 직업들이 농업, 여인숙인 것으로 보아 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원삼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여기에도 어린이집 입구 왼쪽에 ‘원삼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라는 검은 표지판 하나만 달랑 서 있다.

이틀 뒤인 3월 23일 10시 만세운동 기념식 행사장에 왔다. 원삼중학교 학생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시장님을 비롯해 유관 단체장들의 기념 축사들이 이어지고 애국지사 후손들 소개 및 포상, 그리고 만세운동을 재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을 끝으로 기념식 행사는 마무리되고, 백암 흰머리 농악대를 선두로 하여 만세운동 재현 거리 행진을 하면서 전 행사 일정이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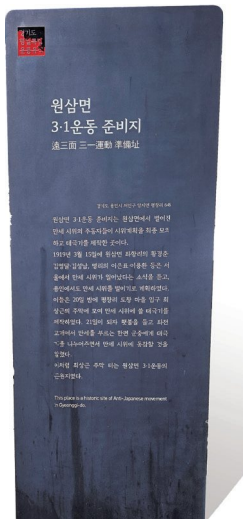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의 이 지역 예스러운 정취가 사라질지도 몰라 행사가 끝나고 원삼면 작은 시가지를 잠시 둘러봤다. 언덕 위에 원삼성당, 거기서 내려다보이는 작고 정다운 시가지, 내려오면서 오래된 집 대문에 걸려 있는 문패가 유독 정감스럽다. 이 문패를 보고 항일 의병, 독립운동에 온 힘을 쏟았던 해주 오씨 가문이 문득 떠올랐다.

일부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문수산을 왼쪽으로 끼고 꼬불꼬불 고갯길을 넘어 아직 건설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지나쳐 왔다. 용인 처인구에 아직도 보지 못한 볼 곳들이 많은데 개발과 맞물려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딜지 또 어떻게 변해 갈지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짐을 느끼며 돌아왔다.



3.1만세운동 기념탑과 동상

원삼면 3.1운동 준비지 역사 설명 표지판





처인성 둘레길에 있는 처인성전투 설명판과 바닥 조형물, 기념비

처인성, 800년 역사의 현장

용인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태어나다

유독 하늘이 예쁜 날이 있다. 푸르른 하늘 때문에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은 날, 나는 그동안 버리고 있던 처인성을 찾았다.

글/사진 고영신

📍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산43 321번 국도를 타고 남사 한숲시터를 지나면 기와지붕의 처인성 전시관이 보인다.

용인은 알면 알수록 참 호기심이 생기는 도시다. 20년 전 용인시민이 된 후 처인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수록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용인의 역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처인성’이다. 토성이어서 더 매력적인 이곳은 이제 큰 축제의 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처인성은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토성으로 고려시대 승려 김윤후와 관련된 성곽이다. 몽골군 침입 시 피하기 좋은 토성이었던 이곳은 아곡리 입구 해발 71m 구릉의 끝부분에 성벽이 남아 있다. 성벽의 둘레는 약 350m, 높이는 약 5~6m다. 외벽은 35~45도 가량 경사를 이루고 있다. 순수한 토층 성벽으로 자연 구릉 경사면 위쪽으로 흙을 쌓고 국난을 극복했던 성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몽골군과의 기록과 발굴된 토기들로 추정하면, 처인성은 13세기 이전에 축조되었을 거라 추측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어골문 기와, 칼, 창, 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고려의 항몽 투쟁의 상징, 처인성 전투

지금부터 대략 792년 전이라니! 그 세월을 차마 가늠해볼 수가 없다. 100년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0년의 세월을 7번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처인성 현장은 용인의 서민들과 승려들이 포기할 수 없는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1232년 6월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은 고려를 침입하였고, 계속 남하하여 지금의 남한산성을 지나 12월경 처인부곡(部曲:고려와 조선 초기에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방 행정단위)까지 내려왔다. 관군이 없는 상황에서 백현원의 승려인 김윤후는 처인부곡민들을 이끌었고, 적의 장군을 사살하였다. 결국 관군이 없던 어려운 상황을 승려와 부곡민들이 이겨낸 역사적인 승리였다. 토성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이를 기념하는 승전기념비를 만날 수 있다.

토성 둘레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들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낮은 산 같은 처인성의 곡선과 저 멀리 보이는 남사의 한숲시티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상반되지만 묘한 매력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옥으로는 최대규모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5년 전만 해도 처인성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너무 초라한 곳이었다. 용인에서 역사를 좀 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같이 “처인성을 사람들이 잘 몰라.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인데 말이야. 빨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 염원들이 모여 드디어 2022년 4월에 명지대와 용인시가 특별히 설계한 기와집 구조의 역사교육관이 만들어졌다. 역사교육관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몽 투쟁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관은 2층 구조로, 1층 로비에는 처인성 전투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스탬프 체험과 영상설명실 그리고 역사관의 건축물이 어

떤 구조로 설계되어 건축되었는지 설명한 소규모 전시 코너가 있다. 설계 도면과 건축 과정을 보면, 이 처인성 역사관을 계획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느껴진다. 이렇게 귀하게 지어진 처인성 역사교육관이 처인성 전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이틀 후 제33회 처인성문화제가 열린다고 해서 다시 방문했다. 처인성 역사교육관이 지어진 후 처인성문화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예전보다 사람은 많이 오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문화제가 열리기 딱 좋은 화창한 토요일, 이틀 전 고요했던 처인성은 방문객들로 들쭉날쭉하고 있었다. 물총놀이, 역사 퀴즈, 군인 장비 체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처인성 전투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와 남사 부녀회에서 준비한 먹거리 부스는 처인성 막걸리를 주문해서 한 잔씩 들이키는 어르신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번 축제는 처인성이 위치한 언덕에 가족들이 마음껏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아서, 완만한 능선 위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처인성문화제의 모습이 유독 아름다운 것은 처인성만의 특별한 자연환경 때문이다. 남사면이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이 처인성의 주변 경관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처인성 둘레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어디인가 하는 어느 시대에 있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와 고려시대 중간 어디쯤 와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이 지나간다. 처인성은 용인을 대표하는 유적지이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 온 흔적이기도 하다. 둘레길에서 우연히 토성의 능선을 따라 서로 손잡고 내려오는 가족을 발견했다. 하늘과 도시와 처인성과 가족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모두가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풍경,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용인 석포숲 공원의 아름다움

글/사진 이영근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던 시기부터 이번 이른 봄까지 은이성지에서 미리내성지로 가는 청년 김대건 길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처음은 문수산 정상 을 거쳐 가는 길, 두 번째는 와우정사를 지나서 가는 길, 세 번째는 석포숲을 살짝 거쳐 갔다. 이번 봄에는 애덕고개를 넘기 전에 석포숲 숲길을 제대로 가로질러 가긴 했지만, 매번 잠시 스쳐 갔거나 건성으로 보았던 석포숲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이래저래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찾아가 좀 더 속속들이 알게 되어 얻어온 게 많았다.



이전에 석포숲 공원(이동읍 목리 산70-4)으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갔는데 이월로 왼쪽 200만평 석포숲 가운데에 석포숲 공원이 표시되어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인터넷 정보를 통해 석포숲 공원 입구 및 조그마한 주차장 가는 길을 발견하였다. 10대 남짓 세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의 무료 주차장에 석포숲 공원 종합안내도가 세워져 있다. 안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 가파른 숲길로 가는 방법(약 20분)과 왼쪽 완만한 임도 길로 가는 방법(약 40분)을 선택할 수가 있다. 두 길 모두 매력이 있다.

한반도지형 데크와 석포숲 중간 정자



가파른 숲길은 약간 가파르고 계단들이 있어 얼굴에 땀방울은 맺히지만, 대신에 숲 그늘, 산초나무 향, 아카시아 향 등 숲의 매력이 눈과 가슴을 상큼하고 시원하게 한다. 반면에 왼쪽 완만한 임도 길은 햇빛과 그늘을 번갈아가며 걸을 수 있고 옆으로 실개천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초여름인 지금은 개복숭아 열매들이 달린 나무들을 볼 수가 있고 봄에는 연분홍색의 예쁜 개복숭아꽃도 즐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석포숲의 정상인 공원에 도달한다. 산림청에 세운 석포숲 공원 기념비, 석포숲 안내도, 전시림 안내도 등을 읽어 볼 수 있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목3리 장촌마을의 아늑한 풍경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석포숲은 손창근 선생님이 50여 년간 잣나무와 낙엽송 200만 그루를 심어 힘들여 가꾸어 온 숲이다. 잘 보존하여 후세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2년 4월 5일 식목일에 산림청으로 기부하였다. 12년이 지난 지금, 숲은 더욱 단단하고 조밀하게 우거진 숲을 이루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조망이 뛰어나 북부산림청 Vista Point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1호 탄소 중립의 숲’으로 선정되어 있다.

석포숲 공원 전시림에는 전나무, 자작나무, 마가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선생님 부친이 나고 자란 북한 지역의 대표적 향토 수종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숲 탐방로는 한반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다. 기념비, 안내도에 적힌 글을 쪽 읽어보다가 석포숲을 기부한 손창근 선생님의 존함이 눈에 익다고 생각하면서 수년 전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기증관에서 이 존함 석자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부친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선행이 이전에도 많으셨고 대표적으로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서화 300여 점



과 2020년 기증 서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가 있다. 세한도에서 느끼는 고귀한 인품과 선비의 기품이 여기 석포숲에 와서도 느낄 수가 있다.

특히 겨울에 와서 보면 세한도의 느낌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진다. 실개천이 흐르는 임도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지를 곱씹으면서 개복숭아꽃이 필 때, 그 열매가 여물 때쯤, 입이 물들 때, 그리고 눈 오는 날 등 철마다와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실개천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낡은 공사 장비와 컨테이너가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게 눈에 거슬린다. 우리는 기증하신 분의 뜻을 좇아 여기를 찾는 분들이나 관할 관계기관들이 모두 함께 석포숲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후대에 길이 보전해서 잘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늘 느끼는 거지만 용인, 특히 처인구에는 역사적으로나 풍경적으로나 트래킹 등으로 가 볼 만하고 아름다우며 멋진 곳들이 많이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으로 쉽게 접근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인구를 도는 순환버스나, 투어 버스를 공영으로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아름답고, 이야깃거리 많은 용인을 즐기고 느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초기의 원형을 찾아서

글/사진 손수정

백자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2023년 봄, 서울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에서는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君子志向)전>이라는 대규모 백자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 중국, 일본의 박물관과 개인 소장 백자가 한데 모인 세기의 전시라 할 수 있었는데, 전시 덕분인지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달항아리로 대표되는 백자와 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림 전시는 많았어도 도자기로만 구성된 전시는 흔치 않았기에 덕분에 나도 도자기, 특히 백자에 관심이 가게 되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의 백자 가마터 ‘도자기’하면 보통은 이천이나 광주를 떠올린다. 그러나 조선시대 특유의 단아하고 소박한 백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용인에 몇 세기 전에 벌써 백자를 굽던 고려시대의 대형 가마터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나도 백자는 조선시대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 고려 시대는 상감 기법을 이용한 화려한 ‘고려청자’가 공식이 아니던가.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백자가 있었다고?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백자의 재료인 백토가 나는 지형이 드물어 소량 생산될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따져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임시 홍보관
 - 운영시간 오전9시~오후6시
 - 처인구 이동읍 중덕로 1
-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 요지
 - 처인구 이동읍 서리로 238-1

보아도 전해지는 고려백자 자체가 많지 않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일 뿐 고려백자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에 고려시대 백자를 만들던 가마터가 있다고 했다. 그것도 규모가 매우 큰 벽돌 가마터라고 했다.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고려백자 초기의 원형을 찾아서

서리의 백자 요지는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한창 문화재 발굴작업 중인 현장, 서리 중덕곡의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이다. 이곳에는 임시 홍보관이 있다. 또 하나는 서리 상반곡의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 요지’이다. 두 지점은 차량으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우선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에 있는 홍보관을 먼저 들렀다. 표지판 너머 옛 가마터를 열핏 보아도 규모의 거대함이 느껴졌다. 확인된 진흙 가마는 길이가 83m, 확인된 입구가 27개나 된다고 하니 그 옛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을 것이다.



(좌) 고려백자 요지에 설치된 안내판 (우) 고려백자 요지 임시홍보관 입구



홍보관 내 전시 중인 출토 유물



상덕고 남측에서 촬영한 발굴 작업 중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전경과 발굴지에서 찾은 대접(완)

그에 비해 홍보관은 아담했는데, 영상을 본 후 벽면의 설명을 읽고, 실제 유물의 예시도 볼 수 있었다. 주로 10~12세기에 만들어진 생활 자기로 예나 지금이나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쓸 수 있을 법한 물건들이었다. 주로 해무리굽¹을 가진 대접(완)이 대부분이다. 찻잔이나 그릇으로 주로 쓰인 물건들은 중국 오대십국의 혼란한 시기를 피해 오월의 월주요 장인들이 고려로 건너와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기술은 빌려왔지만, 우리식 백토로 만든 담백하고 단아한 백자의 맛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걸보기에 공사관 같은 땅이 더없이 소중한 느껴졌다. 2022년에는 1천년 전 왕실 제사그릇 30점이 온전한 형태로 서리 가마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조금 비약하자면, 대영박물관에도 소장된 우리 백자의 원형이 탄생한 곳이, 바로 용인일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장소인 서리 상반곡의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 요지’에 들렀다. 번듯한 홍보관이 있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와는 달리 입구가 초라했고 표지판조차 빛이 바래 있었다. 입구를 찾으려면 개인 소유의 밭들 사이 길로 가야 한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목에 줄을

묶어 임시 조치를 해 둔 곳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안내 표지판이 나타난다. 이곳은 도자기 조각들의 무덤이었다. 갑발²이 쌓여 작은 언덕들을 이루고 있었다. 그 왼쪽으로는 아홉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기리는 글이 쓰여 있는 개인 묘소도 자리했다. 웬지 이 쓸쓸한 도자기 조각들의 무덤을,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1989년 사적 제329호로 지정되기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쩡해져 왔다. 마을 위로는 고가도로 건설이 한창이라 흙먼지가 날리고 덤프트럭이 달려, 이런 곳에 이런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지도 모를 법한 광경이었다.

현재 처인구 이동읍 일대는 한참 개발 이슈로 시끄럽다. 국가 차원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미미하나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지닌 옛 가마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옛것과 그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많아져야만 우리의 옛 기술 지닌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밭 아래 알게 모르게 숨겨진 보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1 가운데는 둥근 해를, 그 주변의 둥글고 두툽한 띠는 햇무리 형태를 하고 있는 도자기의 굽 (출처:우리말샘)
 2 그릇을 가마에 쌓을 때 그릇 위에 썩워서 재가 앉는 것을 방지하고, 불길이 직접 그릇에 닿지 않게 하는 흑으로 빚은 뚜껑. 그릇을 포개어 굽는 것보다 질과 색이 우수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상품(上品)과 중품(中品)의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었다. (출처:국가유산포털 누리집)



유형원 선생 묘 전경과 입구에 있는 안내판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를 찾아

이번 여름에 마을 자원조사 활동으로 조비산에 몇 번 왔었다. 지도 어플로 근처를 보면 유형원 선생의 묘 표시가 보이고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다. 가까운 시기에 여기를 와 보고 싶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10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길을 나섰다.

글/사진 이영근

1976년 8월 경기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된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는 조비산을 거쳐 경기 옛길 영남 제7길 구봉산길 구간에 있는 정배산 자락,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산28-1에 있다. 선생의 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도 제325호선 삼백로를 타고 장평리 삼거리에서 용인 대장금 테마파크 방향으로 해서 가다가 왼쪽 용천로109번길로 가거나, 장평리 삼거리에서 조비산가든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다가 오른쪽 황새울로 가는 방법이 있다.

지금 용천로와 황새울로까지 도로 확장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이 길의 3분의 2지점에 선생의 묘로 가는 진입로가 있다. 따라서 황새울로로 가는 방법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진입로 입구에는 유형원 선생의 묘로 가는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 옆에 하얀 철책으로 닫혀 있는 농원 안에 잘 정돈된 묘가 있는데 이곳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긴 다른 사람의 가족묘로 보인다.

표지판 입구에서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잡초가 나 있는 농로가 보인다. 입구부터 약 km 정도 걸어 들어가면 오른쪽에 건물 하나 있고 작은 주차 공간이 있다. 거기서도 약 200m 올라가야 정배산 자락에 있는 선생의 묘에 도달할 수 있다. 정배산은 낮은 산이라 올라가는데 힘들지는 않다. 중간 안내 표시가 있어 생각보다는 찾기가 쉽다.

계단을 올라 문인석과 상석이 있는 첫 번째 아래 묘가 선생의 묘이고 둘레에는 기와 토담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위쪽에는 선생의 부친 묘가 자리 잡고 있다. 비석에는 선생의 모친도 함께 모셔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합장묘치고는 크지 않다. 선생의 묘 앞에 잠시 서서 세월의 흔적이 깃든 비문을 읽어 본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새겨진 금석문의 필체가 오래된 글씨지만 정갈해 보인다. 선생의 묘 앞에 자란 나무들이 시야를 가린다. 조금 정리해

주면 묘에서 바라보는 조비산 정상 전경이 참 아름다울 거 같다.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국사 현장 체험 수업을 가끔 여기서 하면 좋겠다. 어릴 적 학교 소풍을 이런 유적지에 간 기억이 떠오른다.

내려오는 묘 옆길 나뭇가지에 영남길 리본이 달려 있다. 이 길이 경기 옛길 영남 제7길 구봉산길 구간이다. 옛날에는 선생 묘가 있는 곳이 한적한 장소가 아니었나 보다. 비록 지금은 일반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 외진 곳으로 보인다.

마을 자원조사 활동과 문화재단 아르러너 활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처인구 쪽에 자연경관, 역사적 장소, 트래킹코스 등 흥미로운 것이 많아서 경기 옛길 영남길 구간이나 용인의 여러 유적지 등을 자주 다녀 보고 싶은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아쉽다는 것이다.

유형원 선생 묘 주변에 있는 영남길 표지판과 리본



유형원 선생 묘 입구 표지판과 진입 농로



황새울로에서 들어오는 길에 보이는 조비산 전경



마을 어귀의 약천 남구만 선생 별묘

약천 남구만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

글/사진 손수정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청구영언」 「약천집」

이 시조는 교과서에 실려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유명한 시조를 지은이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세 번씩이나 지낸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선생으로 시호(諡號)가 ‘문충(文忠)’이다. ‘시호’라는 것은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붙여 주는 이름이다. ‘단심가’로 유명한 포은(圃隱) 정몽주 역시 시호가 같다. 글로 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일까. 그만큼 남구만 선생은 당대 최고의 명문장가이자 서예가였다. 사실, 이 시조를 지은이와 지은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남구만 선생이 말년에 지냈던 처인구 모현의 파담마을 동쪽에는 왕국과 연결되는 장사래고개¹가 있는데 ‘재 너머 사래 긴 밭’이 모현의 이곳을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다.

📍 남구만 선생 묘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90-7

📍 사당(별묘)
 처인구 모현읍 파담로 70



약천 남구만 선생 묘소 전경과 안내판

유배 갔던 강릉 약천사², 거제, 남해 등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마다 그의 미담과 글, 비석 등이 남아 이 시조를 지은 곳이 그 고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그 마음도 이해가 간다. 어떻게든 그 지역과 남구만 선생을 엮어 보고 싶을 만큼 불세출의 위인이었기 때문이리라. 그의 흔적이 용인에 있어서 따라가 보았다. 묘역에 가기 전 그가 만년에 살았던 고택으로 먼저 향했다. ‘약천선생별묘’라 불리는 곳이다. ‘별묘’란 종묘에 들어갈 수 없는 신주를 따로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을 말한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23년간 지냈던 곳인데, 이곳에는 남구만 초상 1점과 후손들이 관리하는 유물들이 있다. 대문이 닫혀있어 둘러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돌담 안으로 비석이 세워진 안마당을 빼

꿈 들여다보며 그곳을 거닐었을 남구만 선생의 옛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곳으로부터 1.5km 떨어진 모현읍 초부리 하부곡에 용인자연휴양림 가는 길목에 그의 묘역이 있다. 초입에는 비석이 서 있는데, 예의 그 ‘동창이 밝았느냐...’로 시작하는 시조가 있고 까만 신도비에는 왜 이 자리에 남구만 선생의 묘소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적혀있다. 오른쪽 언덕배기에 ‘혹시 이 무덤일까?’ 싶은 무덤이 하나 나오지만 300보 정도 더 올라가라고 한 비석의 내용을 믿고 조금 더 길을 따라 올라간다. ‘아, 여기구나.’ 싶게 깔끔하게 정리된 초록 구름지에 자리 잡은 남구만 선생의 묘가 나온다.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왕국과 갈담리 파담마을을 연결하는 고개. 디지털용인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 지금의 동해시 3 능묘(陵墓)의 석상(石床) 앞에 마련하여 향로를 놓기 위한 석대(石臺)이다.
 4 멀리서도 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묘역의 좌우에 세우는 석주형의 표지석이다.

이 곳은 1990년 11월 22일 용인시 향토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향로석³, 묘표석, 망주석⁴이 오래된 묘임을 잘 보여준다.

임금의 분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에는 할 말을 다 하는 강직한 성품만큼 너른 초록빛에 눈이 시원해졌다.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내려다보면, 아래의 땅이 마음이 가득 담기는 명당이다.

남구만 선생의 성품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의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 10월 13일 기사로 전해진다.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에 잡혀간 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지시키고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안용복이 관리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때 남구만 선생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져 사형은 안 된다고 주장하여 안용복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성품으로 인해 남구만 선생은 치열한 봉당정치의 세월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치를 따랐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임금이 노여워할지라도 거침없는 논리를 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로는 숙종 시절 장희빈의 중전 책봉을 반대했던 일과 장희빈의 책략이 알려지면서 세자의 외숙인 장희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목숨을 보전하는데 힘쓴 일 등, 소론의 거두였음에도 같은 소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옳다고 믿는 것을 행했다.

남구만 선생의 묘소를 보니, 그의 넓은 식견과 바른 심성이 절로 전해오는 듯 했다. 긴긴 세월 관직에 있으면서 유배를 갈지언정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약천 남구만 선생. 요즘 이런 위인이 있으려나 싶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마음이 흔들릴 때 가끔 찾고 싶은 곳. 남구만 선생의 묘역이다.



남구만 묘역 입구의 동창기 비석

할미산성의 옛 흔적

글/사진 이영근



나는 마을이나 산, 강 등에 붙여진 이름에 늘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항상 그 이름에는 유래와 사연이 담겨 있어서 신기하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할미성, 노고성, 마고성 등으로 불리는 할미산성이다. 그중에서도 ‘할미산성’이라는 지명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산성의 도면상 말머리와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고, 마고선인 또는 마고할미가 쌓았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할미산성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곳곳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마고할미의 전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할미산성이 문헌에 등장한 것은 『증보문헌비고』(1779)에 처음 기록된 것이 최초이다. 다만 여기도 고모성(姑母城)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지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할미산성으로 향했다.

할미산성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산23번지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경계에 있는 선장산 정상에 있다. 산 정상 넓은 평지에 유적 발굴지가 있다. 여기를 찾아가려면 적당한 산행을 필요로 한다.



석성산이 보이는 데크, 그 아래는 유적 발굴지이다.



▲ 할미산성 해설표지판
▶ 동남쪽 성벽



할미산성 가려면 여러 길이 있는데 석성산을 거쳐 가거나, 향린동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백현마을 쪽에서 가는 길, 동백에 있는 효종당에서 가는 길 등이 있다.

나는 그중 가장 접근이 쉬워 보이는 효종당 옆 길을 선택해서 갔다. 효종당으로 가는 길은 차로도 만만치는 않았다. 두 번의 좁은 지하차도를 통과한 뒤에 효종당 앞에 도착했으나 할미산성 가는 입구 팻말이 안 보인다. 오른쪽 입도로 가는 길로 가보니 공사 중이다. 용인시 할미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계속 정비사업 중에 있다는 안내가 보인다.

다시 돌아와 효종당 오른쪽 길을 따라 완만한 임도길로 들어서자 왼쪽으로 산길이 보인다.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 보니 정상으로 가는 팻말 표시가 보이고 그 이후는 정상 방향을 표시하는 팻말들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할미산성 표시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길이 맞는지 조금 불안했다. 효종당에서 선장산 정상까지 거리는 대략 1.5km 남짓인 거 같았다. 정상까지의 산길은 가볍고 나무 그늘이 있어 가는 길이 시원하고 즐거웠다.

정상에는 선장산 정상석과 함께 할미산성이라는 표시가 있다. 석성산 방향으로 비스듬한 평지에 할미산성 유적 발굴지가 보이고 정상과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 유적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동, 서, 남, 북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동남쪽 방향의 성벽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

발굴 조사에 따르면 6세기 중반~7세기 중반 신라 유적들이 발견되는 걸로 보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가 성벽을 축조한 걸로 짐작한다. 한 때는 그 이전에 백제나 고구려가 축조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였으나 발견된 유적, 유구 등으로 종합 고찰해 볼 때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적 발굴지 전경

지리적으로 보아 6~7세기 초 한강 유역을 두고 삼국이 대립할 때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성을 축조하고 그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성을 다시 축조하고 여기에 많은 유물들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유적 발굴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현재는 잡초들로 무성하다. 일부 구간에는 역세 군락을 이루고 있어 가을에 오면 풍경이 아름다울 거 같다. 선장산 정상인 할미산성은 트래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석성산에서 출발하여 가도 좋은 곳으로 가볍게 다녀올 수도 있기도 하다.

정상에서 보는 풍경 또한 멋지다. 학생들에게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까지의 한강 유역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2009년에 마련된 용인시 할미산성 종합정비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을이나 눈 오는 겨울에 한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산성을 내려왔다.



남쪽에서 바라보는 조비산

조비산의 산마루에서

조비산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석천리, 장평리에 접해 있는 해발 294.5m의 조그마한 돌산이다. 산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모양이 달리 나타난다.

글/사진 이영근

구봉산 쪽에서 보면 넓은 들판에 홀로 우뚝 솟아 그 고귀함을 뽐내고 있고, 백암에서 보는 조비산 북쪽 면은 두 개의 바위를 종긋 세운 모습인데 지금은 우거진 나무로 그 모습을 숨기고 있다. 안성 방향에서 바라보는 남쪽으로는 암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조비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가 나는 모양을 뚜렷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동쪽 한택식물원 방향에서 볼 때는 구름 속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신비스러운 모습이다. 이처럼 조비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방이 탁트인 들판에 우뚝 솟은 모습이 의젓하고 세련되어 그 빼어난 멋과 품격을 뽐내고 있다.

용인에서 아름다운 산을 꼽는다면 용인8경 중 제6경인 조비산이라고들 한다. 산이 빼어나다 보니 산에 얽힌 전설이나 이야기가 많다. 그중 하나가 조선 초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서울로 옮길 때 삼각산 자리에 산이 없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을 이곳으로 옮겨 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장수가 조비산을 점지하고 서울로 옮겨 가는 중에 이미 삼각산을 옮겨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산을 옮겨갈 필요가 없게 되자 석천리에 내려놓고 기분이 상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을 향하여 방귀를 끼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조정에서 알고는 조비산의 이름을 폐하여 조폐산이라고도 하고 역적산이라 불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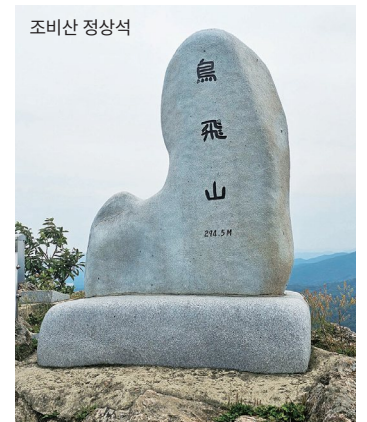
다른 이야기는 조비산은 서울이 싫어 얼굴을 남쪽으로 돌리고 있어 불경하다고 하여 역적산이라고도 한다. 조비산이 북으로 향한 정상 쪽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남쪽으로는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남쪽은 얼굴 앞부분이고 북쪽은 얼굴 뒷부분처럼 보여서 입금이 계신 북쪽을 돌아서 앉아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 예전에는 산의 머리가 남쪽으로 뻗어 있었는데 1970년 규석을 캐려고 머리 부분의 바위를 훼손해서 뽀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머리 부분이 없어져 역적산 관련 이야기의 의미나 흥미가 덜해졌다.

용인에 있는 산들을 두루 다녀 보았지만, 조비산은 처음이라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 보았다. 처인구 백암 쪽에 위치해 있어 수지에서 출발하니 꽤 먼 거리이다. 42번, 45번 국도를 거쳐 318번 지방도로 들어서면 용덕 저수지, 목리, 문수산 터널을 통과하고 원삼 SK하이닉스 부지 조성 현장을 지나서 325번 지방도로 들어선다.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조비산이 보이고 곧 정상으로 가는 입구에 도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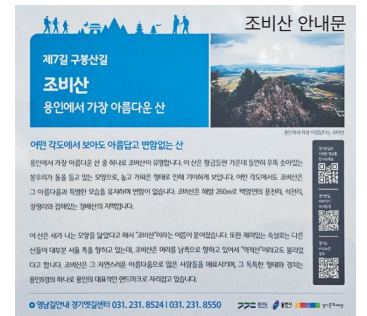
조비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지도상으로 조천사로 오르는 길, 효사랑 요양원에서 출발하는 길, 조비산가든에서 올라가는 길 등 여러 갈래가 있다. 조천사로 가는 길 표지판이 있는 길로 조천사까지 차로 올라갈 수가 있고, 조천사에서 왼쪽으로 200미터 올라가면 정상이다. 요양원으로 가보니 지도에서 나타나 있는 등산로가 따로 보이지는 않고 논·밭길만 있다. 요양원 안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은 포기해야겠다.



이정표가 보이는 등산로



조비산 정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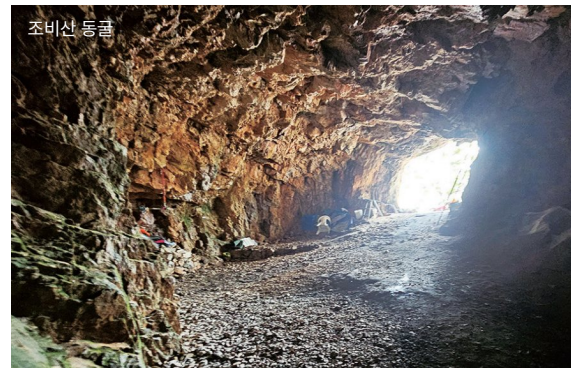




조비산에서 내려다 본 마을 전경



조비산 황금들녘



조비산 동굴

조금 수월해 보이는 조비산가든 길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왼쪽에 김해 김씨 문중 묘역을 끼고 경사가 완만한 길로 300m 정도에 오르면 왼쪽으로는 구봉산, 오른쪽으로는 조비산 정상 이정표를 만날 수 있다. 정상 100m를 앞두고는 커다란 동굴을 만난다. 짐통더위에도 동굴 안은 시원하다. 조비산 암벽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기도 하는지 몇몇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쉬고 있다.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옛날에 주석을 캐던 곳이라 한다.

막바지 정상까지는 좀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드디어 정상에 올라 보니 사방이 탁 트인 전망이 가히 용인 8경에 들 만하고 조망이 아름답다. 가을에 벼가 익을 때쯤이면 누런 황금 보자기에 싸인 느낌이 들 거 같다.

트래킹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비산-정배산-달기봉-구봉산-석술암산 전체 코스나 일부 코스를 택하여 도전해 볼만한 곳이다. 정상에는 평평한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백패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해질 무렵에 올라가 노을을 감상하고, 한밤중에는 별을 보고, 아침에는 해 뜨는 모습을 즐기기에 최고의 장소인 거 같다. 암벽등반 초보자들에게는 남쪽으로 향한 암벽에서 훈련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조비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지 조비산 중턱쯤에는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심할 정도로 많다. 따라서 여름에는 조비산 정상 탐방을 추천하고 싶지 않고 가을 또는 겨울이 좋을 거 같다.

선사시대 살아있는 역사의 체험, 민간 신앙의 토대가 된 창리 선돌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마을 앞을 흐르는 안장천 동편으로 뻗어 있는 야트막한 야산 끝까지 입구에서 있는 창리 선돌을 찾았다.

글/사진 남미애

📍 처인구 남사읍 487-1

현재 선돌 유적의 정면 쪽에 공장 ‘준일산업’이 자리하고 있어 들판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감바위골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유적이 있다.

선돌은 사각형 펜스가 둘러져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돌 앞쪽으로 문화재임을 증명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고, 안내표지판에는 창리 선돌의 유래와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선돌 재질은 응회암이며 현재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높이는 2m 가량이다. 완전히 자연석은 아니며 약간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세월의 흔적으로 검은 이끼와 한몸이 되어 본연의 돌의 색은 퇴색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긴 시간 마을을 지키며 하늘을 향해 단단하게 우뚝 서 있는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을 긴 검을 거꾸로 세워둔 모습과 같아서 ‘검바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옛날부터 이 선돌이 쓰러지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선돌이 민간 신앙의 한 대상으로 신성시 여겨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자연석이나 자연석을 일부 다듬어 세워놓고 신

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창리 선돌에서 보듯이 선돌은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세워지기도 하는데, 무덤 공간임을 알리려는 묘표석(墓表石)의 기능을 하며, 마을 입구에 세워진 선돌은 벽사 또는 수구막이 역할을 하는 마을 수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논밭이나 이를 내려다보이는 얇은 구릉에 세운 선돌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경계와 이정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창리 선돌 근처에는 고려시대 몽골군을 대항한 격전지였던 처인성과 일몰이 아름다운 창리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어 같이 둘러 볼 만하다. 용인에는 창리 외에도 원삼면 사암리, 두창리에 선돌이 있다. 또한 포곡읍 유운리에는 조선시대 선돌이 위치하고 있다.

창리 선돌을 통해 선사시대 그 옛날 옛적부터 조상들이 마을의 풍요와 다산, 안녕을 기리는 민간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존하려는 노력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 다음 답사는 용인 지역의 다른 선돌을 둘러보고 특징이나 차이점을 비교해 봐도 좋겠다.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도심 속 재래시장 용인중앙시장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으로 이사 온지 20여 년. 그 세월동안 구도심인 김량장동 일대는 풍경이 많이 변했다. 경전철이 생기고, 들어올 것 같지 않던 고층 아파트들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처인구의 모습은 많이 변했어도 아직 예전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처인구청 앞의 좁은 도로, 처인구 해곡동에서 출발해서 광주시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안천 위의 풍경들 그리고 용인중앙시장¹의 장날 풍경이다.

글/사진 고영신

📍 처인구 김량장동 133-1번지
주차정보 : 중앙시장 제1,2공영주차장

환갑이 넘은 도심 속 오일장 김량장(용인중앙시장)

용인에는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재래시장이 있다. 5일마다(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재래시장은 메인 상가들이 있는 김량장동 골목부터 오일장에만 열리는 금학천 주변 상인들의 행렬까지 규모가 꽤 큰 편이다. 평상시에는 700여 점포들이 즐지어있는 시장 골목의 모습이고 오일장날에는 2백여 개의 이동 상인들까지 합세해서 금학천을 따라 더 성대하게 열린다.

이 오일장은 오래도록 법정동의 이름인 ‘김량장’이라고 불리다가 ‘용인재래시장’으로 불렸었고 지금은 ‘용인중앙시장²’으로 불린다. 김량장에 관한 이야기는 1972년과 1977년 「용인군지」에 실려 있다고 한다.

¹ 옛이름은 김량장이다. ² 이하 중앙시장으로 표기

김량장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기원스토리가 있다. 하나는 옛날에 김량이라는 장수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지력이 뛰어나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는 것인데, 이후 사람들은 김량이 사는 곳을 축약하여 ‘김량’이라고 불렀고, 이곳에 장이 서자 ‘김량장’이라고 불렀다는 설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김량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후손들은 조상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꺼려서 김량장 대신 금양장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외에 ‘김량이라는 사람이 산 곳’, ‘좋은 질의 금이 나오는 곳’, ‘쇠가 많이 나는 고개’ 등 다양한 유래가 존재한다.

특색있는 골목 골목

오일장날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필요 물건을 사기 위해, 간식으로 먹을 떡을 사기 위해,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중앙시장을 종종 방문한다.

‘농협골목’, ‘떡·만두골목’, ‘순대골목’으로 이름 지어진 골목들이 있고, 골목마다 파는 품목들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상징이 되는 건물 이름을 이용해서 ‘우체국골

목’이나 ‘시장약국골목’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 금령로에서 중앙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면, 테마별로 골목이 나뉘어있는데 용인의 전통순대를 파는 ‘순대골목’, 명절 때마다 제일 바쁜 ‘떡골목’,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농협골목’, 의류와 잡화가게가 모여 있는 ‘잡화골목’이 있다.

중앙시장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치킨가게가 많아서 치킨골목이었던 적도 있었고 구뚝가게가 많았던 시절도 있다고 한다.

추억의 장소이자 치열한 삶의 터전

방문객들에게 중앙시장은 떡볶이를 사먹고 알사탕을 사먹던 추억의 장소다. 우리의 모습은 변했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가게들이 있다. 인심이 후한 반찬가게, 매운 이모네 떡볶이집, 유명하다는 수제비식당, 줄 서서 먹는다는 씨앗호떡. 김장철에는 늘 들리는 고춧가루집, 명절이면 들리게 되는 떡집. 누군가는 엄마가 사준 따뜻한 옥수수가 생각날 것이고, 누군가는 늘 사다 먹는 손두부가 생각날 것이다.

다양한 먹을거리 가득한 용인중앙시장 내부 전경





중양시장 내 팔굉일우비 전시관과 설명판



용인중양시장 주변 금학천 풍경

중양시장 안에는 1983년에 세워진 주상복합 상가 청한상가 A, B동이 있다. 지금은 아주 낡은 모습이지만, 196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주상복합 건축물이 1980년대 용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곳이 상거래가 활발한 곳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때부터 청한상가 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상인들이 다수이다. 지금은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곳으로 이사를 간 상인들이 많지만 그들의 고향은 아직도 이 중양시장이다. 시장 안에는 잡화점을 30년 넘게 하신 어르신도 있고, 순대가게를 대물려서 하는 청년가게도 있고, 자녀들이 나란히 부모님 옆에 가게를 시작한 가족도 있다. 그들에게는 시장이 그들의 추억이고 인생 그 자체다.

“그때는 말도 마. 에버랜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 중양시장이 호황이었지.”, “내가 중양시장 대로변에 피자가게를 처음 열었어.” 시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저마다 인생 스토리가 있다. 누구나 소설 한 권을 쓰고도 남을 인생을 살지만, 시장 안에서의 삶은 훨씬 녹녹치 않았을 것이다.

시장 주변에는 존재만으로도 역사인 곳들이 있다. 희미한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용인서점’, 아버지에 이어 따님이 운영하고 있

는 ‘서독안경’, 버스정류장의 이름이 될 정도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시장약국’, 수십년 동안 용인의 모든 문화행사들을 촬영한 ‘명일미디어’, 최근에 정리한 ‘장미갤러리카페’ 등이 그곳이다.

중양시장 광장에는 1919년 3월 24일의 용인 학생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일본 침략의 합리화를 위해 세운 팔굉일우비도 친일파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 중양시장 안으로 옮겨져 있다.



용인중양시장 광장의 학생 만세운동 표지석



용인중양시장 입구의 관광안내소



용인중양시장 광장



금학천변에서 바라보는 용인중양시장 전경

시대에 맞추어 축제의 터전으로 변해가는 김광장

중양시장은 2022년 도시재생사업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2023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시설들이 개선되기도 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보기도 했다. 2023년부터 봄맞이 축제, 별빛마당 야시장이 진행되었고 2024년에는 야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규모가 커지면서 처인구 주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까지 이곳으로 나들이를 온다. 지난 6월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는 3일간 1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요즘은 레트로 붐으로 80년대 노래가 청소년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고 있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기억에서 잊혀진 재래시장도, 핸드폰 들고 꼭 가봐야 하는 젊은 세대의 투어코스로서 도약하길 바라본다.



김가항성당 전경



양지에서 고요한 산책을 하다 은이성지와 양지성당

글/사진 고영신

살다보면 가끔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다. 복잡한 세상사를 뒤로 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싶을 때,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은이성지가 떠오른다. 고고한 학처럼 서 있는 하얀색의 김가항 성당은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곳의 어느 누구도 조용하라 하지 않지만 기침소리 하나 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다.

은이성지는 양지IC에서 차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다. 은이성지와 함께 둘러보면 좋을 곳은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양지성당이다. 은이성지와 양지성당의 거리도 차로 7분 정도로 고요한 산책을 위한 좋은 경로이다.

- 은이성지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 182
개방시간: am 9시~pm 5시(월요일 제외)
- 양지성당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64번길 8
*양지IC에서 차로 5분 거리.

고요한 산책이 어울리는 곳, 숨어있는 마을 은이성지

은이성지의 이야기는 조선후기의 천주교 박해에서 시작한다. 17세기 전반에 서양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졌던 천주교는 18세기 후반 정조 때부터 일부 양반과 중인들이 종교로 믿기 시작했고 점차 서민과 여성들에게 확산되어 나갔다.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천주교로 인해 조선의 관습과 질서가 무너질까 우려한 조선 조정은 천주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순조 즉위(1801) 후 신유박해부터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후, 천주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숨었고 은이성지는 숨어 지내던 천주교도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 중 하나였다.

은이성지는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산길을 따라 미리내성지까지 갈 수 있는 김대건길이 조성되어있다. 김대건길은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길은 은이성지-와우정사로 이어지는 6km 청년 김대건길 힐링코스이고, 두 번째 길은 김대건 신부가 생전에 사목활동을 하러 다닌 길로 3개의 고개를 넘어 3개의 마을을 지나가는 10.3km 청년 김대건길 순례코스이다. 세 번째 길은 문수산 등산로를 따라 석포숲을 지날 수 있는 길로 3개의 고개를 다 들리지 않는 10.3km 청년 김대건길 등산로 코스이다.



김대건 신부 기념관



김대건 신부가 세례받은 장소에 있는 조형물



김대건기념각



김대건 신부 동상

동아시아 종교연구소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은이성지는 하얀색의 김가항성당을 보는 것 만으로도 소소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020년에 용인시 향토유적 제71호로 지정된 김가항성당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성당이 아니다. 김대건 신부는 은이성지의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유학을 떠났고 1845년 8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곳이 바로 중국 상해의 김가항성당이였다.

2000년에 그 김가항성당이 철거계획이 결정되었고 2001년 10월에 이 김가항성당을 은이성지에 복원하기로 결정되어, 대들보와 기둥을 가져와 성당을 복원시켰다. 김가항성당 옆에는 김대건 신부의 성장과정과 사제로서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다. 기념관 앞쪽에는 김대건 신부가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에 조형물이 세워져있다.

화려한 꽃나무 하나 없이 고요한 은이성지의 건너편 도로에는 용인문화해설사의 집이 있다. 은이성지에 대한 설명부터 여러 주변 가볼 곳에 대한 추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은이성지에서 골배마실과 미리내성지까지 가는 도보순례와 셔틀버스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24년은 3월~11월 매월 4번째 주 토요일에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은이성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식을 받거나 문의할 수 있다.



양지성당 벽면의 벽화와 내·외부 전경

한국적 멋을 지니고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양지성당

은이성지를 나와 남곡2리를 지나면 용동중학교 인근에 특별한 성당이 있다.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지나치기 쉬운 이 성당은 걸로 보기에 천주교 성당같아 보이지 않는다. 마치 기와집을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듯한 양지성당의 시작은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모본당(母本堂)은 미리내성당으로 남곡리공소였는데, 1927년 남곡리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목조 성당을 지었다.

용인에는 양지성당보다 먼저 설립된 포곡읍의 압고지 본당이 있었으나 1930년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양지성당이 용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주교 성당이 되었다. 1959년 처인구 김량장동에 용인성당이 설립되기 전까지 용인본당이라고 오래 불렸다. 지금은 김량장의 용인성당이 용인본당이다. 양지성당의 주보성인은 성 김대건안드레아로 성당 입구에 김대건 신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양지성당은 붉은 벽돌을 쌓은 후에 기와를 얹어놓은 구조이다. 성당건물의 좌·우 외벽에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입구의 김대건 신부 동상 앞쪽의 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넓은 잔디밭 한쪽에는 조용한 기도를 위한 성모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촛불들이 켜져 있다.

종교를 떠나서 넓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보면 절로 마음이 경건해진다. 묵직한 느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에 들어가도 될까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야 한다. 성당 안 제대에 새겨진 김대건 신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조용히 내면의 기도를 하게 된다.

평온해지고 싶을 때, 고요해지고 싶을 때 은이성지와 양지성당이 있는 처인구 양지로 향해보자.

용인 농촌마을 기록집 처음

처인의 소중한 자산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소박하고 소소한 기쁨으로
만나길 바라며...



STORY 02

마을 소식
주민이 쓰는
마을 이야기



'마을 고모님'이라는 호칭이 좋아요 다인네 외갓집

능원3리 이문자

너무나 작은 마을이라 안골 또는 삼태기(농사용 기구) 같다고 해서 삼태기 마을이라 불렀던 능원리가 고향이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능원3리가 되고 등록된 가구 수는 100가구가 넘는다. 야트막한 동산을 끼고 양옆으로 바가지를 엮어놓은 듯 작은 초가지붕이 열여섯 채 머물고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 아래 재실이라 불리던 기와집과 저헌 이석형 선생의 종가인 기와집이 마을을 버티는 듯했다.

모현초등학교의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교생 200명 남짓한 15분 거리의 능원 초교를 오가며 실개천을 따라서 물방개, 물무당, 물잠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가끔은 진달래, 짙래, 순, 싱아 잎을 따먹으며 하룻길을 즐겼다. 부모님 덕에 도시에 나가 공부를 했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평범한 도시인이 되었다. 내 나이 오십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이 떠난 고향은 농촌에 농사꾼이 없었다. 나름대로 문전옥답이던 전답은 잡목이 우거져 논도 없고 밭도 없었다. 8남매를 키워 출가시키고 덩그러니 비워진 종갓집 장독대를 지키시는 친정어머니가 홀로 고향집에 계셨기 때문이다.

90년대 분당에 신도시가 탄생하고 나라에서는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살리기 운동을 펼치며 우리 마을도 농촌진흥청 후원 전통테마 체험마을로 2007년에 지정이 되었다.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시작했고 청년회와



부녀회를 조직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버려졌던 논밭을 다시 일구고 체험학습 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청년회장으로 마을을 이끌던 조카의 덕으로 나는 마을에서 '고모님' 명칭을 얻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독과 전통장 만들기 기술을 물려받아 '다인네 외갓집'이란 전통장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 몸담았던 교직생활에서 얻어진 '선생님' 명칭과 다인네 외갓집에서 붙여진 '사장님' 혹은 '원장님'의 다양한 명칭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을 고모님'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지금은 마을이 아름다워 새집을 짓고 이사를 왔다는 새로운 이웃 주민들에게도 부담 없는 '고모님'은 너무도 정다워서다.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맹골마을 서태순

맹리에 들어와 산 지 벌써 13년. 세월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 버렸을까. 앞만 보고 달려와서 좀 쉬고 싶어 시골로 귀촌했는데, 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키우다 보니 또다시 일 속에 묻혀 살고 있는 것 같다.

깨끗한 농산물을 먹고자 지인이나 자식들에게 큰소리 쳐놓고 농사를 짓다 보니 실패도 많았다. 특히 심는 시기, 지역에 맞는 농작물 등 모든 것이 서툴러서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곤 했으나 그 다음 해에 또 잊어먹고, 또 묻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분이 쌓여가고 좋은 이웃이 되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니, 마을의 순수한 어르신들은 더 반겨주셨다. 늘 이렇게 살아가길 원했는데 잘 이루어진 것 같아 감사하다.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다 심고 과일나무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종류를 다 가꾸고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앞이 보이는 것 같다. 열심히 가꾸고 예쁘게 꾸며 놓으면, 모두 와서 즐

기며 놀다 가니 기분도 좋고 나 자신도 웃음이 절로 나서 신났다. 그렇게 신나게 일했더니, 몸도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재미 있다. 동네분들과 어울리고 예쁜 텃밭 가꾸어 먹거리, 풍성하고 지인이나 자식들 한 보따리 싸 보낼 때 더없이 좋았다. 그러나 무리해서 허리 수술까지 하고 힘들고 지치니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한 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꽃 피면 온 동네가 꽃잔치요. 새가 많아 눈만 뜨면 여기저기 새들의 음악소리, 농민들의 물길을 열어주는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소리, 모든 게 좋다. 예쁜 동네, 마음씨 좋은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 세월 낚는 재미로 더 잘 살아 봐야지.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였으니, 농촌이 더 좋고 사랑스럽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늘 이렇게 살아가련다.



용인살이 36년, 농가 아낙네의 열정 잠들어있던 정미소, 카페 '석실방앗간' 으로 재탄생하다!

가짜리 석실마을 황경자

나는 안성 고삼면에서 방앗간집 둘째 딸로 살다가 86년도에 4-H연맹에서 안성 여부회장과 용인 회장(남편)으로 만남을 갖고, 87년도에 용인시 백암면 수정산자락에 돌이 많은 마을이라는 '석실마을'로 시집을 왔다.

석실마을은 옛날부터 양천 허씨 집성촌이라 모든 주민이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 주 수입원은 논농사와 밭농사이고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이곳에서 시집살이하며 이슬에 옷 젖듯이 스며들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냈다.

열정 날갯짓을 시작하다

농촌 생활은 고정관념 속에 변화되는 것 하나 없이 아이들만 한 살 한 살 먹고 성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용인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민박 사업이 있다가에 내가 살고 있던 100여 년 된 한옥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잠재의식에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나하나 손질하니 너무 재미있고 성취감이 생겼다.

그러다 이 오래된 한옥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에 황토방도 만들고 주방과 식당도 만들었다.

예전부터 지덕체의 이념을 좋아했기에 집 주변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예쁜 정원을 만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족구장도 만들었다.

오래된 정미소를 깨우다

머리에는 창작 열정이, 가슴 안에는 그림 열정이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기다림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유혹과 장애와 설렘과 고통 등의 단어들이 모자랄 기나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나에게 행운의 기회가 찾아왔다. 2019년 경기도 로컬푸드 농가사업에 선정되었다. 예전부터 운영되었지만 폐허가 되어가는 정미소 건물을 새로 깨워서 몸단장을 시키고 이름도 찾아 호적에 올려주었다. 농가 카페로써 농산물로 떡도 만들고 고구마도 구워서 나눠 먹으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를 만나서 모든 손님께서 침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세월이 무색하게 흘러 침묵이 풀리고 묶여있

던 망아지처럼 우왕좌왕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없던 돈을 투자해서 방앗간 카페를 시대에 맞는 옷으로 치장을 하고 전문인을 투입해서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나고자 했다.

카페를 식음료 기반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농부와 상인, 창작자와 함께 소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교류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직 우리 부부는 손님들께 부족함이 많아 죄송하고 쑥스럽다.

농가 아낙네의 소망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족구장 옆에 30년이 넘는 메타세쿼이아 2그루가 있는데 그 위에 트리 하우스를 만들어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기념일, 프리포즈 등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

남편의 리더십과 나의 재능이자 취미인 요리, 장식,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손님들과 소통하며 기억에 남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꽃을 담은 삼계4리 떡 방앗간 김미선

글/사진 고영신

처인구 포곡읍 삼계 4리 골목에는 밖에서 보면 꽃집인지 방앗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입구에 꽃 화분들이 줄지어있는 방앗간이 있다. 부모님에 이어서 2대째 아들 부부가 운영 중인 그 곳을 찾아 세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내 김미선 씨는 전라북도 진안이 고향이다. 용인 신갈의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남편 강희복 씨와 22살에 결혼하면서 아는 이 하나 없는 용인 포곡읍에 살게 되었고 ‘삼계 떡 방앗간’ 며느리가 되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용인 시내 방앗간을 포곡으로 옮겨 이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셨다. 그녀는 방앗간 집 며느리로 지냈던 세월을 회상하며 동네에서 인품 좋기로 유명하셨던 시아버님을 떠올렸다. “용인댁으로 살며 녹녹치 않던 세월 동

안, 아버님께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다”며 말을 꺼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열이 나서 힘들 때 시아버지께서는 새벽에 포곡읍에서 전대리까지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약을 사다 주셨다고 한다. 모두가 최고의 시아버지라고 말하던 그 시절의 아버님께 지금도 감사하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 아버님께서도 연로 해지신 후, 단 한 번 아들 부부에게 “그럼, 누가 방앗간을 이어가느냐!” 고 역정을 내셨다고 한다. 그 후, 남편과 함께 아버님의 뒤를 이어 방앗간 사장님이 되었다.

부부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남편 강화봉 씨는 의용소방대 등 여러 활동을 해왔고 부인 김미선 씨는 올해 삼계 4리 부녀회장을 맡았다. 그녀는 회원들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 싶다. 지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영시니어(young senior)’라는 65세 이상의 합창단을 만들어 연습 중이다. 11월 발표회를 앞두고 걱정이 많지만, 회원들이 기대보다 잘한다고 설레임도 가득했다. 부부는 이제 아버님이 방앗간일이 힘들다 했던 그 나이와 가까워지고 있지만 체력이 될 때까지 부모님처럼 ‘삼계 떡 방앗간’ 부부로 살아갈 것이다.



웃음꽃 피는 마을살이

두창3리 최영선

노령화된 농촌 마을인 두창 3리에는 연로하셔서 논일, 밭일하기가 어려워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좋아할 만한 일을 고민하다 부녀회 도움을 받아 색칠 공부를 하던 중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 감사함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 연세가 90대, 80대여서 참여 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니 어르신들은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붙이면서 즐겁고 재미있어했다. 각자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고 칭찬하며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늙어서 못 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이 나이가 되도록 처음 경험해 보는 시간이다.”라며 이야기를 해 주셨다. 매시간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 궁금해하며,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설레며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완성된 작품들을 경로당에 전시하고 보니 각자의 개성이 담긴 각양각색의 작품이어서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뿌듯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면 좋겠고,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널리 전해져,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추억의 수여선 기찻길

양지7리 이재근

저 멀리서 기적 소리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기차가 역으로 들어온다. 우리 또래들은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인다. 누군가가 말했다. 기차 레일 위에 못을 올려놓고 그 위를 기차가 지나가면 그 못은 자석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증명하듯 여럿이 모여서 기차 레일 위에 못을 올려놓고 그 못이 어디로 튀어 나가는지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 못은 자석이 되지 못한 채로 납작하게 그대로 기차 레일 위에 누워있다.

지금의 이런 기억은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았다. 기찻길은 없어지고 42번 국도로 자동차가 그 위를 달린다. 양지는 아주 오래된 교육도시이다. 조선의 중종(1523년) 때 향교가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양지 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양지의 위상이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양지면은 일제 강점기 1914년 내사면으로 변경되어 불렸다. 그러다 1996년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양지면'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현재는 10개의 리(里)를 포함한다.

양지면은 과거 수여선(수원-용인-이천-여주를 왕복하던 협궤 열차) 시절부터 양지 IC 개통까지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레저와 문화를 겸비한 수도권의 멋진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의 후광으로 양지면은 더욱 더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지면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개교를 간절히 기원한다.



사랑과 정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사암리

사암5리 정총희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엔 뭉게구름이 예술 작품을 연출하고, 구름 사이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넓은 들판에 황금빛 따사로움을 뿌려준다. 오늘은 시월 두 번째 화요일, '엄지회'에서 반찬 봉사를 하는 날이다. 마당 한 편에서는 달콤하고 구수한 호박죽이 끓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찹쌀 응심이 회원님들이 뽀얀 손으로 빚어낸다. 오늘 메뉴는 호박죽과 불고기, 나물 반찬이다. 정성껏 요리해서 어르신 마흔다섯 분께 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함께 동분서주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감사할 따름이다.

7년 전 원삼면 사암리에 이사를 와보니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봉사 단체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마을 부녀회장님과 원삼면 부녀회 협의회장님을 찾아가 봉사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서슴지 않고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회원 모집부터 시작된 봉사단체 '엄지회'는 현재 32명의 회원으로 늘어나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나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마당 한 편에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봉사 공간을 마련했다. 덕분에 엄지회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르신들께 반찬을 해드릴 수 있었다. 이제 이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오가다 들러서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마을은 정과 사랑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훈훈한 인심이 오뉴월 띄약별만큼 따끈따끈하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어 담고, 어르신들께 전달하기 위해 두 명씩 짝을 지어 차에 오른다. 일찍부터 지칠 법한데 발걸음이 가볍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도 잠깐씩 옆을 돌아보고 살피는 훌륭한 사람들~! 길가에 핀 들꽃이 화려하지 않다고 하여 밟아버린다면 꽃은 피어도 상처투성이의 꽃이 되겠지만, 주의를 기울여 비켜 지나가면 아름답고 은은한 야생화가 된다. 회원들이 계시기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름다운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풍년 맞은 곳간처럼 행복으로 마음이 풍요롭기를 바란다. 함께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볼수록 어메이징한 매력만점 모현

왕산10리 변창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자치학교 수업을 세번이나 들었는데 매번 즐겁고, 새롭게 배운 것도 많다. 우리 마을에 대해 역사와 현재도 생각해 보고 주민들을 위해 적용할 사업도 생각해 보는 너무 좋고 귀한 시간들이었다. 모현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반성도 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많은 아이디어 중에 특히 청계천 축제처럼 마을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경안천을 배경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조만간 현실로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고 전시나 공연도 하고 경안천을 가로질러 나룻배도 띄우고 싶다. 모현하면 포은문화제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경안천 단풍축제로 젊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은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이런 곳이 있었나?'하고 이사오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 마



을은 자랑할게 너무 많다! 모현의 지명은 정몽주 선생과 관련되어 충신을 사모한다는 충절의 마을이고 고대시대의 지식묘가 있고, 포은 정몽주, 남구만, 이사주당 등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들의 묘소가 있다. 힐링코스로는 우리나라 대표 휴양림인 용인자연휴양림이 있고 경안천 산책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쉽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외국어대 입구부터 이사주당묘소 옆의 태교숲을 지나 노고봉까지의 코스는 최고의 등산코스이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용인외고는 모현읍의 대표 교육 시설이다. 아! 모현이 전국 생산량의 80% 내외 생산하는 청경채 자랑이 빠졌다. 모현쌀 모현미도 있다. 내년이면 고속도로 IC도 생기고 전철도 언젠가는 들어올테니 모현은 이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고 사통팔달 교통까지 좋아 살만한 우리 고향. 모현으로 오시길 바란다.

함께하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고당1리 오경근

원삼면 고당1·2·3리 마을은 뜨거운 여름 동안 4회에 걸쳐 전통 음식 '장아찌'에 대한 배움을 시작했다.

첫 시간은 우왕좌왕. 하지만 장아찌의 정의와 주요 기록에 대한 이론을 시작으로 장을 이용한 무한대의 음식이 탄생하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양과 맛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며 뿌듯한 마음도 생겼다. 각 계절마다(음력 기준) 풍부하게 많이 나는 제철 식품을 이용하고, 절임장에 따라 빨리 먹거나 천천히 먹을 수 있고, 익힌 것과 날것에 따라서도 먹을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생긴다. 소금(수분 빼고) > 간장(간맛추고) > 고추장(맛 들임) 순서에 따라 절임이 이루어져야 잘 숙성되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변하지 않는 귀한 반찬이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민족의 인내, 끈기, 집념의 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귀한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지혜와 그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던 정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마을은 원삼의 중심지로 공공기관이 집결한 면 소재지이다. 리가 나뉘며 어딘지 모르

게 화합된 예전의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고, 하이닉스 개발로 외지인이 많아지며 옛정이 메말라 못내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행정상 나누어진 리는 어쩔 수 없지만 화합된 모습과 서로 나누던 정이 그리웠다.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마침 '즐거운 마을 이웃과 함께'라는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 우리들은 장아찌 요리를 하게 되었다. 3개 리 15명의 부녀회원들이 재료를 함께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나누며 즐거웠고, 만든 장아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정을 나누었다. 노인회관에도 나누며 어르신들의 기뻐하심에, 채워지지 않은 허전했던 마음과 아쉬웠던 마음들이 서로 함께하고 교감하면서 행복했다.

행정상 3개 리로 나누어졌지만 역시 우리 '고당리'는 하나였다. 이렇게 큰 사랑 나누며 화합된 마을, 행복한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길 간절히 바란다.

